

제56호

2013 + NOVEMBER

제265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의회 소식

본 회의
의원동정
의원논단
도정질문
5분발언
주요안건처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의정연찬회
포토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당신의 정체

최 준

오늘도 밝음보다 어둠이 넓은 오후다 정적은
멋대로 자란 측백나무 울타리에 갈비뼈 사이를
용케도 헤집고 다니며
소란했던 과거로 고집스럽게 돌아가려는 추억인 그림자에
모난 주춧돌을 박아 놓은다
이끼들의 산란처인 뒤편에는
감나무 한 그루 서 있으면 좋겠다
지붕보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싶다 가끔이나마
뒷산을 내려와 뒤편으로 붙어가는
바람의 안부라도 물을 수 있게

아, 하지만 너무 오래 입 닫고 있는 저 창문들은 어쩌나
아이의 울음마저 들리지 않는 밤
윗목 장통과 그 앞에 버려둔 밥상의
빈 그릇들은 언제 치우나
마당 구석 꽃들은 남은 숨결을
시월이 마저 들어주길 바라며 미물소리로 찾아들고
통화불능의 전화기
점등되지 않는 전구들
서서히 기울어가는 지붕 위 하늘에 떠 있는
전생과 배고픔은 모든 게 자취일 뿐
기억 속을 들성하게 가로지른 거미줄일 뿐

아시겠는지 이제 나는
문 두드리다 문을 놔두고 돌아서는 빈집의 시간을
당신이라는 이름 부르기로 한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5회 임시회 개회사	32	상임위원회
03	본회의	38	특별위원회
04	의원동정	41	위원회
06	의원논단	42	의정연찬회
18	도정질문	44	포토의정
28	5분발언	46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30	주요안건처리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전화 | 041)635-510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담당

| 팩스 | 041) 635-5009

| 디자인·제작 | 인쇄기획 가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금빛 들녘으로 넘실대는 결실의 계절에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민생현장을 살피시면서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모전에서 우리가 지식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 3.0 선도과제」에서도 우리의 「물 통합관리사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3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천안불당초등학교 이준모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연대회인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와 「전국청소년 공상과학 UCC 공모전」 및 「과학송 경연대회」 등에서도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알찬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회기에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회기에도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침 저녁엔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큼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7.

충청남도의회의장 이 준 우

"충청남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운영"

도정·교육행정 질문 15명 53건, 5분발언 6명, 조례안 및 승인안 등 44건 심의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 제265회 임시회가 총 53건의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6명의 5분 발언, 4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과 미래교육을 위해 진정성 있는 업무처리를 했는지 검증했다.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도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정책 추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천안 물류단지의 운영실태 등을 따져 물었다. 또 교육청이 조직과 인사정책에 대한 정책대안 및 장학사 인사비리 사건 이후 쇄신안을 점검했다. 5분발언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법률 제정, 백제문화제 자율축제 육성, 수산물 자율유통센터 건립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4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를 10월 31일까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 서면,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에 대한 도비 228억원을 출자하고자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와 대책마련을 위해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동정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감사로 선출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보령)이 9월 24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제23회 정기회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고, 21세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가 실현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유병국 의원(천안)이 9월 25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6기 후반기 제2대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실무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2013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공로상' 수상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은 9월 2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언론사협회와 K스타저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13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대한민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회장이 수여하는 문화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충청남도의회 김장옥 의원

천안의료원 1일 명예원장



김장옥 의원(비례)은 9월 30일 천안의료원 1일 명예원장을 수행했다. 외래 진료과와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에게 쾌차를 비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직접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펴 주는 일을 몸소 체험해서 뜻 깊었다”며 쾌적한 환경과 최신식 시설, 최첨단 장비를 운영하여 진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와 대안



이 준 우 의장
충청남도의회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96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하여 올해로 23년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관분리형 지방자치 제도를 택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정비 수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통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첫째, 각 나라의 지방의회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특례로 일반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곳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의회 공무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 직렬의 신설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방정부는 부지사, 부시장 등 보조기관의 임명시,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시, 지방의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예가 있을 뿐인데,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에 적극적인 예산안 수정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광역시 의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어떠한 예산안도 수정할 수 있고, 동일한 의결정족수로 단체장의 발전전략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

넷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자신들의 개인비서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하는 업무가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데도 현재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보좌 인력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1명도 둘 수 없는 것은 상식과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4년으로 바꾸되,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만큼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집행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부지사나 국장급 급여에 비해 낮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지방의원에게 과도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의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경비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보수도 지방의원들의 보수 결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공천제를 명시하여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에게 공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바람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 사례에서처럼, 의회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간행물이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개방하는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1215년 권리대헌장(Magna Carter)의 시대로부터 환산하면 800년 이상,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으로부터 200여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을 경과하였다는 점을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제안들이 받아들여 진다고 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을 평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

보았던 의정활동 내용의 부족, 외유성 해외 연수, 지나친 자기 과시 등 불신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 스스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책무와 윤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의 댕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지방분권 시대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정책결정 주체로서 중요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말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명언대로, 지방의회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한 권한 강화를 통해 권력분립에 따라 집행부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특권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이 글을 기고하면서, 그동안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수레 바퀴로, 무거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짊어지고 오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면서 서로의 잘못이라고 남 탓만 하던 지난 22년을 되돌아보고, 똑같은 수레바퀴를 통해서 무거운 중앙정부의 짐을 내려놓고 210만 행복한 도민을 싣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충청남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 소득중심으로 바꿀때다



김 장 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7년 7월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는 보험료가 비교적 싸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율을 보면 5.89%로 일본 8.2%, 독일 14.86%, 프랑스 13.85% 등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고, 건강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대수명은 80.7세(OECD 평균 79.8세), 인구 1천 명당 영아 사망률은 3.2명(OECD 평균 4.6명)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몰라보게 향상된 것은 정말 평가 할만하다.

더구나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 상황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할 즈음의 경제여건과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이고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이렇게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없기 때문이란단. 우리보다

50년을 앞서 건강보험을 시작한 일본을 찾지 않고 한국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 7월부터 지역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 조직이 되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 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로,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 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되어 대부분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초기 소득 파악률이 10% 밖에 되지 않던 1990년대 말의 부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집과 자동차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납부하였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매우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얼마 전 이웃의 한 지인이 건강문제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당연히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으로 전환되자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56,700원 정도 납부하던 것이 107,600원으로 거의 두 배나 오른 것이다.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및 자동차 또한 가족 구성원들까지 모두 부과기준에 반영되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정한 보험료 부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직장가입자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들 간에도 발생한다고 한다. 가입자간에 개인의 보수액만 같으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은 똑같다 하니 과연 이것이 사회보험의 형평성의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 일정액 이하의 연금 금융소득 및 재산이 있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에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는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다.

공단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현재 79.7%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고, 양도 상속세 등 국세 청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추가하면 95% 정도의 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을 공단의 개혁안처럼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수궁할 수 있는 단일화된 공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에서처럼 소득이 없음에도 퇴직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형적인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가정한 모의 시험 결과도 전체 가구의 92.7%가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니,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지 7.3%만이 인상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97.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 89.7%도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소득이 있었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던 241만명의 부담이 늘것

이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80~90%는 부담이 내려가고, 10~20%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연간 6,400만건에 이르는 공단의 부과관련 민원도 자연스럽게 줄어 이와 관련한 업무 담당직원을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들에게 골치아픈 민원으로 각인되어 온 건강보험 부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최근 중산층 세금부담 문제와 연관지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이중현 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2001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나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함으로써 '정규직 시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새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정규직 대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급락하였고, 공적연금, 보험 등의 근로조건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에 종사하는 비중이 56.0%에 달해 OECD국가 평균 13.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자영업자가 많은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 및 여성과 고령층, 청년, 저학력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경쟁 심화와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에 대응하여 핵심업무는 정규직을, 비핵심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근로자의 경우 노동자단체가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되었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비정규직

이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보다 비용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법제화할 경우 연간 약 7조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파견이나 용역 등 전일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여성을 위한 일-육아, 학생을 위한 일-학업 양립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을 위한 핵심업무형 등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문화가 생겨나 고용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길 바란다.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명절을



김홍열 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사상 유례없는 더운 날씨로 온 국민이 전력난을 극복하고자 한마음으로 절전에 동참하던 기억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덕담이 있다. 보름달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히 살아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현대사회는 핵 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모두 떨어져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생업과 학업 등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 태어난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가족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흠어져 있던 가족이 모여 그동안 맘껏 농사짓고 햇살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차례상에 올리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추석은 가족과의 정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날이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통시장과 과일가게에는 다가오는 추석선물이나 제수음식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금번 명절에는 가족과 지인들

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하고 행복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긴 추석 연휴 하루하루를 어찌 보내야 할지를 걱정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족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이들은 남들이 즐기는 명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다.

경기가 호황이거나 불황이거나 세월이 갈수록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금과 후원 물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한다. 현대 사회풍토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명절 특유의 즐거움과 넉넉함 그리고 여유로움은 느낄 수도 없고, 찾는 사람도 하나 없고 찾아갈 곳도 없어 금년 추석 명절도 쓸쓸한 연휴를 보내야 할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맘때가 되면 왠지 서러움이 더 다가온다.

나눔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에 선듯 나서지 못하는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 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항상 바쁘고 내 생활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금년 추석은 귀중한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뜻 깊은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라는 의미는 “함께 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잠시 고개를 돌려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눔의 사랑의 첫 걸음마를 해보자.

남들이 말하기를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고 즐겁다고들 한다. 평소에 바쁜 일상들로 주위를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올 추석엔 따뜻한 정을 우리

이웃과 나눠보자. 꼭 나눔이 남들과 같이 거창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작은 나눔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내보자.

흘러넘치진 않지만 나의 주어진 여건에서 나보다 조금 더힘든 이웃을 위해 배려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그대 있음에 고맙습니다



김득응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눈을 감고 떠올려보라. 당신에게 충남을 빛낸 위인들은 누구인가? 열 명 이상 셀 수 있다면 당신의 애향심과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선 제일의 충의를 지킨 성삼문,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조선전기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청백리 맹사성,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쓴 국문학의 선구자 김만중,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윤봉길 의사,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이들은 우리 충남을 빛낸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충남은 예의 고장, 양반(선비)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으며, 타 지역에 비해 충신, 열사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도 홈페이지에 충남을 빛낸 위인으로 소개된 인물은 자랑스러운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42명뿐이다.

이제 충남의 역사적 인물을 100명 내외로 발굴하고 선정하여, 충남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청백리와 충신·독립열사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기리는 것이 시급하다.

충남을 빛낸 위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역사 문화의 뿌리를 찾고, 현대와 과거 세대의 교감을 통한, 살아있는 역사교육은 물론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다.

충남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지역 사회와 국가, 민족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들은 사료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생애나 활동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효행인물들도 많다.

지역 인물 연구는 충남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자원이다. 문화·역사·학술·정치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충남인물 사전 발간 등 후속사업들이 이어져야 한다.

충남을 빛낸 위인 선정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인물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면 지역학의 건실한 토대가 될 것이다.

올해 우리 도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사업은 토크콘서트, 보드게임, 교육용만화, 애니메이션 제작

으로 채워졌으며, 도비는 총 1억천만원이 투자되었다. 장기적인 계획은 커녕 당장 내년 사업계획도 불투명하다.

충남을 빛낸 위인 100인 선정 사업과 함께 역사문화 인물 콘텐츠 개발을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여, 지역의 재능 있는 개인과 단체들에 창작동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으로 우수콘텐츠를 발굴·축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을 기념하는 인천광역시의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사업은 순항중이지만, 충청북도의 대표인물 100명 선정사업은 표류중이다.

타시도의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공정하고 적합하게 충남을 빛낸 위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실제 활동과 업적 중심으로 선정하되, 친일인사나 월북인사, 외국인 등을 선정할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이념과 행위를 사실대로 기술함으로써, 위인의 과거를 추적하고 사료를 찾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남의 백년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어른다운 어른이 사라졌다는 오늘, 가곡 <그대 있음에>의 마지막 소절은 뜻 깊다.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나…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본받고 따르고 싶은 자랑스러운 그대들이 있었음에 고맙습니다.

녹색성장시대 악취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조길행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 주변 환경의 인분과 가축의 분뇨, 폐수, 생활쓰레기 등의

냄새가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이러한 악취는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사람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하며, 심리적 영향에 의한 정서생활의 방해, 작업능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식당,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확산

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의 ‘06년 전국 악취민원발생 현황에 의하면 4,797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05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9개 지역만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여 악취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산 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원인으로 첫째, 돈사 내 물청소는 폐수량의 증가와 함께 폐수처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180일 동안 비육시키면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둘째, 양돈장의 폐수는 고농도의 폐수로 농민이 처리시설을 가동하기에는 어려워 이를 고액분리기를 통해 분뇨 덩어리를 분리했으나 이를 비닐하우스에서 자연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양돈장 폐사율은 약 8%로 2~3일에 한 마리 정도 폐사돈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道)는 돼지 약 212만두, 소 53만두, 닭 4,450만수 가량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축분뇨는 하루 약 1,559만 리터에 이른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수질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을 확대하여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소·인 제거 시설 설치, 공법 개선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자원화 관리기반 조성 및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생된 오·폐수를 오염원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처리하고, 축산폐수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정화시설로, 소규모 농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보내져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가 오면 하수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방류에 따른 악취가 우려됨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충남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악취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석이조의 빗물 재 활용



이 광 열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장마철인 요즘, 비가 주룩주룩 많이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빨라지는 장마에 지쳐 그저 피하고 싶은 존재, 산성화 된 비로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 마냥 안타까워진다.

현대사회에서의 물 사용량은 자꾸 늘어나지만, 물 자원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 그 자체밖에 없다.

향상 된 생활수준과 그에 따른 물 소비의 급증으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이용 수요량이 너무 적어졌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전락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물 절약의 필요성과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급속도로 이루어진 도시개발은 물 순환체계를 망가뜨려 놓았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빗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물 순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빗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

우리 충남도는 2012년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8개 시·군에 설치되었다. 우기와 건기가 구분된 나라에서 저수조가 적어 빗물 집수가 적고, 빗물의 오염도가 높아 생활용수나 화장실 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도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물이 부족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부족한 물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저장된 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그로인한 물에 낀 이끼와 오염으로 인하여 그냥 버려지고 다시 물탱크를 말려 또 다시 물을 받는 반복으로 빗물 저수조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타시·도에서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어

빗물을 과수원이나 허드렛물 주로 청소용수, 정원 용수, 화장실 비상용수 등으로 이용된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빗물을 빗물 저수조에 모으도록 지붕에 홈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지붕면적당 저수조 용량을 제곱미터당 0.05~0.1 세제곱미터로 설치하면 홈통 하나당 모을 수 있는 빗물 총량은 연간 50~100톤을 모을 수 있다.

1,000(약 303평)제곱미터의 지붕에 승용차 21대 주차 할 정도의 공간만 할애한다면 대형 댐을 짓는 셈이 되는 것이다.

자원측면으로, 지속적인 보조 수자원을 획득함으로써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치수측면에서는 집집마다 빗물을 많이 모으면 하천의 범람을 늦출 수 있고 가뭄에는 물을 내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빗물 처리 장치와 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고, 열섬 현상완화,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전반적인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빗물재활용 시스템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도시를 '레인 시티'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도시이름처럼 우리생활 속의 물 부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우리 도에서 '빗물재활용 시스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황실온천~! 온양행궁 복원 및 재현, 원도심권의 활성화를 기대



이 기 철 의원
교 육 위 원 회

옛날 온양 땅에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3대 독자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을 장가 보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도하였더니, 꿈에 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자식의 장가보다도 먼저 그대의 다리를 고쳐야 하니 내일 들판에 나가

절름거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오면 이를 잘 살피서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이튿날 들판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다리를 다친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들판의 연못에서 사흘을 머물더니 다리를 고쳐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노파가 그곳에 가보니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므로 노파도 그 못에서 10여일간 발을 담갔더니 절름거리던 다리가 나았으며, 3대독자 외아들도 장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온양온천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57℃로 다른 온천수에 비해 수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마니타온을 함유한 라동온천이 온천수의 주요 성분이며, 약알카리성을 지닌 양질의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단순천(單純泉)으로 탄산수소나트륨·황산마그네슘·탄산칼륨·규산·황산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류마티스, 근육통, 신경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에 효험이 있다.

백제,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역사가 1300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온양행궁(溫陽行宮)에 행차한 왕은 짧게 1주일에서 길게는 두 달 이상 머무르게 되었는데 왕들은 단지 온천욕으로 질병치료에만 전념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곳에 머물면서 지역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다른 국정을 보았던 것이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국내 대표적 온천관광지역으로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1995년 전까지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신시설과 질 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온천관광지들이 전국 여기저기에 생겨나면서 관광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수도권 전철 온양온천역 개통과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 상인들은 개통과 함께 연일 이어지던 온천욕 관광객들이 대부분 온천욕만을 즐기고 바로 떠나는 뜨내기 손님들이 주를 이뤄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산시는 원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지구 개발 방안과 함께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굵직한 시내권 개발사업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정착 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의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거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일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온양행궁(溫陽行宮)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사업이다.

온양행궁(溫陽行宮)이 원래 자리에 복원되고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반경 500m이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원도심권 대부분이 개발에 지장을 받게 되고,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비용 등을 포함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바꿔 온양온천만의 특색 있는 온양행궁(溫陽行宮) 재현 단지를 조성하여 아산지역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왕이 행궁에 머물며 건강을 지키고 정사를 돌보던 왕실온천욕 문화를 현대화시켜 온양온천만의 특색 있는 웰빙 온천문화를 만들어 지역관광산업의 중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고 있다.





도정질문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10. 14)



장기승 의원
|아 산|

Q ① 정부차원의 사할린 한인 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②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할린 한인 지원관련 조례 제정 ③ 사할린 한인지원 전담공무원 지정

A도지사 ① 천안·아산·서천 전액 국비사업 진행 중앙정부의 정착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 ② 조례 자체 내에서 독자적인 어떤 사할린 한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안을 보고 올리겠음 ③ 전담 공무원 배치는 시·군과 협의·조치해 사회복지분야 증원 배치 지도해 나가겠음

A복지보건국장 ①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차원의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②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음 ③ 시·군의 경우 전담공무원을 지정 애로 및 지원사항 등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의·조치해 나가겠음



유병돈 의원
|부 여|

Q ① 열악한 보육교사 인건비 개선대책 마련 ② 민간보육시설 개원 시설자금지원 부정적 개선방안 마련 ③ 보육교사 근무여건 매우 부당, 전면적인 개선필요 ④ 도차원의 영유아 개선대책 미흡,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A도지사 ①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도 차원에서도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의회 보고 후 중앙정부에 건의 ② 부정행위는 운영자 개인의 그릇된 인식이 큰 요인,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③ 국·공립의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음 ④ 도 재정 내에서 확대해 낼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A복지보건국장 ① 처우개선비(국도비)를 지급해도 130만원 수준에 불과, 교사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운영자들의 관심도 필요함 ② 민간 어린이집 설치시 임대차를 포함, 대표자의 부채 비율이 50%미만일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인가 가능 ③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준수 지도 ④ 지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토록 함

보충질문

Q ① 영유아 3세 교사1인당 15~18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대책 ② 급료문제, 보육교사 2년 근무 못하는 대책 등

A복지보건국장 ① 현황 파악 세밀히 개선, 복지부와 협의하겠음 ② 감사원 및 권익위 등 감사와 관심 가짐



김득웅 의원
|천 안|

Q ① 어린이집 부정수급 척결, 급식·위생·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②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조성 현황

A 도시사 ①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도의 정책을 종합 보고토록 하겠음. 효과적인 공공 영·유아 보육 시설 확대를 위해 도의 계획 수립 후 정부에 제안 내용 정리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음 ② 광역행정 측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으로 도 광역행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겠으며 도시환경을 심의하는 도에서는 도행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정책을 펴보겠음

A 복지보건국장 ① 도내 2,079개소이고, 담당인력은 도 3명, 시·군까지 합해서 38명임. 다른 복지 업무 겸하고 있음. 우리도 올해 54명을 충원해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정을 준수토록 시·군에 지침 시달, 공개시 엄중한 징계 요구 하도록 함.

A 건설교통국장 ② 시행중인 각종 지침 개정,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등을 「범죄예방 환경조성지침」을 마련하겠으며 커뮤니티매팅 방식도 적용 가능한 사항과 내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방안 강구토록 하겠음



이은철 의원
|교 육|

Q 교육청 ①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에 관하여 ②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감의 근평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③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중학교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A 교육감 권한대행 ① 상호 갈등과 불협화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소통,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② 본청에서 초등 교감 근평조정시 교육장님들의 의견반영 비율을 높이고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 평가, 청렴도 평가 등을 반영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A 교육행정국장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감사 권한을 위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

보충질문

Q 교육청 ① 충남교육청 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청 조직 방향에 대해 기능중심과, 업무중심중 설문을 통해서 의견 파악할 수 있는지 ② 장학관 승진에 대해서, 발탁인사 계속 하실건지 ③ 학생수련기관장을 전문직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는지

A 교육감 권한대행 ①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초등에서는 원하는 쪽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 됨 ② 발탁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무보직 장학관으로서 가장 기피하는 장학관이고, 비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알아봤는데, 오실분이 없고, 그만큼 역량을 갖춘 분이 올 의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③ 복수적인 경우에는 바꿔 보도록 하겠으며 그 직위에 걸맞게 운영 하도록 하겠음



윤미숙 의원
|천 안|

Q ① 교도소 수용자 자녀보호 및 지원관련

A도지사 ①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청소년진흥원 및 Wee센터 그리고 일선의 복지직들이 업무를 주관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활동 지침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A여성가족정책관 ① 수용자 자녀의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이 문제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여성가족부, 교정본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많은 수용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상담지원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Q 교육청 ① 교도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접근권 ② 학교 스포츠클럽 강사를 시군 교육청에서 순회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 ③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④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일반교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생활체육 연수 운영에 대하여

A교육감 권한대행 ① 수용자 자녀의 Wee센터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청과 협력해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파악한 후 Wee센터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보안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원거리 학생들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A교육정책국장 ② 인근 학교 및 지역별로 그룹을 편성하여 시간 강사채용을 적극 지원, 스포츠 강사의 생활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포츠 강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③ 체육교사 직무연수에 새로운 스포츠 강좌를 개설해서 여학생의 활동중심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부터 남녀혼합 학급에서는 남녀 분리수업 등 여학생 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④ 일반교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관련 직무연수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서 의원님의 고견대로 일반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노력하겠음



이종현 의원
|당 진|

Q ①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그 대책 ②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조성 관련 ③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계획 발표가 지난 9월 6일 인삼축제장에서 이루어진 경위와 개최관련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A도지사 ① 사업자 선정이 안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비책을 수립해 나가겠음. ②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농민들과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농업재정제도를 설계해 국가와 국민들한테 제안해 보자는 말씀을 드림 ③ 인삼엑스포의 개최에 대한 금산군민의 욕구가 크고 엑스포와 관계가 있는 축제장에서 발표한 것이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뒤에 자책을 했으며 의회를 더욱더 존중해서 일하겠음

A경제통상실장 ① 사업자 선정이 안될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 지역주민들의 의견 협의를 거쳐서 구역해제 또는 다른 대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협의 강구하겠음

A농정국장 ② 기금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간 합일된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물어 별도 보고 드리겠음 ③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계획 발표가 지난 인삼축제장에서 이루어진 후 도의회 보고·협의 드리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17년도에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음



고남중 의원
|예 산|

Q ① 내포신도시 원주민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계획 ② 내포 보부상촌 조성 관련 사업계획 축소 이유와 도의 역할 ③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원도심 이전계획

A도지사 ① 지선망을 확보해서 미리 사전에 투자가 가능한지에 조속히 협의 추진해서 시행과정 향후 계획을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② 공동으로 관리방안 찾아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보부상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음. 지방비중 20%만 군비로 부담 하는데 협의하였으며 운영관리는 공동관리 방안으로 군과 협의하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림 ③ 재단의 재정여건, 내포신도시 건설과 보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전장소 및 시기를 검토해 나아갈 계획이며 내포신도시로 인해 인근 시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A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① 비용문제고 시기조절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A 건설교통국장 ② 최초 구상보다 사업 시행시기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계획기간인 2018년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는 물론 도비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음

A 경제통상실장 ③ 충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이전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군과 상생발전의 필요성 고려해서 재단의 이전장소 시기 등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임

Q 교육청 ①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의 공사·물품구입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입찰한 내역과 사유 ② 예산군·홍성군 지역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 임대운영에 따른 주민불만사항 해소방안

A 교육감 권한대행 ① 공개경쟁 입찰내역은 각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자료가 많은 관계로 현재 취합중에 있으며 추후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음

A 교육행정국장 ② 교육기관들이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사용료의 징수도 관련 규정에 맞게 공·사립 학교에서 투명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음



송덕빈 의원
|논 산|

Q ①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방안 강구 ②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③ 조직안정 및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방안 강구

A도지사 ①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더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3농혁신위원회의 산림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 되어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마을 충청남도 발전전략을 함께 세워 나가겠음 ② 철거량에 따라서 연동 되어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운영 계획을 별도로 짜 나가겠음 ③ 소수직렬 및 각종 직렬에 대한 전문성이 지휘부의 역량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음

A 환경녹지국장 ① 우리도에는 전문적인 치유의 숲은 없으나 적합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2018년까지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임.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농·산촌마을 등 75개소에 피톤치드 발생이 많은 편백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하여 소규모 “힐링숲”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A 건설교통국장 ② 지원단가가 동당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하고 도비 7억 4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과 주민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비지원이 부족하지만 도비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에도 국비 부담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A 안전자치행정국장 ③ 4급 이상의 경우 도정의 관리자로서 조직관리와 통솔력에 초점을 두고 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5급 이하는 실무중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금년도 5급이하 인사에서 기술직 등 소수 직렬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시행함.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도정질문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10. 15)



유병국 의원
| 천 안 |

일문일답

Q 농정국장 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중부농축산물류센터 사업기획단 구성, 적자운영, 보조금 반환처분 지시, 도민의 혈세 낭비요인) ②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③ 농사랑 쇼핑몰

A 농정국장 ① '95년 7월 25일날 도 농정국장 등 7명으로 사업기획단이 구성된 바가 있으며 감사원에서 2009년 1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우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회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고, 농식품부는 2010년 12월 31일에 보조금 228억원을 반환할 것을 우리도에 통보를 했음. 각종 정책결정 등 사후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②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도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상존함 ③ 공공사업을 통해서 농사랑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유통망 속에 들어가고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우리도가 추구할 생각은 없음

Q 문화체육관광국장 ①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A 문화체육관광국장 ① 안면도의 경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가 행정적으로 사업자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중앙정부나 각급 기관들과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음

Q 건설교통국장 ① 백제의 미소길 언제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지 ② 2차선 차도로 계획했다가 중간에 시민연대 등의 반대로 생태탐방로로 변경한 것인가

A 건설교통국장 ① 백제의 미소길을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가야산을 배경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계획했으며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도에 끝나기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약430억 정도 계획했음 ② 생태탐방로 개설로 변경함

Q 기획관리실장 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 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

A 기획관리실장 ① 정책실명제 등록카드를 QR코드 활용 스마트폰으로 검색 승진평가시 정책실명제 카드 제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김중문 의원
| 천 안 |

Q ①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② 시·군 지자체의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방안 ③ 간접비용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할 용의가 있는지 ④ 도와 시·군 지자체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A 도지사 ① 총액인건비의 규정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공사방식을 도용하든지 공사설립을 통해서 각종 상시고용 인원과 계약직 기간제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며 고용의 형태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A 안전자치행정국장 ① 임금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호봉제를 도입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녀나 가족의 학비 복지포인트 지원 무기계약직 임용시 이전경력도 인정 등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차별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종합계획에 담아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 ② 부단체장 회의시 시·군에 건의,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고 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해 나갈 계획임 ③ 직접고용의 문제는 없겠지만 운영상의 문제 등을 2차 종합대책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④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Q 교육청 ① 부당해고 조리원 복직판결 관련 복직명령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②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문제 관련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급식실 조리원 해고유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

A 교육감 권한대행 ② 타 시·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도 대법원에 상고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수용해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A 교육정책국장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조리원의 구제명령 등 제반 판정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③ 2013년 2월 28일자 감원대상인 조리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6개월 감원을 유보한 인원은 모두 열여섯 분이며 이들에 대한 6개월분 1억3,487만4,000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인력풀제를 통해서 다시 채용하고 또 희망퇴직을 받고 계약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은 추후에 해당 학교예산을 감액할 예정임

보충질문

Q 교육청 ① 천안두정중학교 조리원 부당해고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이기 때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유

A 교육정책국장 ① 두정중학교 조리원은 순수 기간제근로자임 1차,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정당한 근로 계약해지라고 판단하여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해서 지원한 것임



이진환 의원
| 천 안 |

Q ① 중앙-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화 추진 ②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인사제도 마련 및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여부 ③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의 문제점 ④ 천안물류단지의 문제점

A 도지사 ① 실·국장 및 도 지휘부의 중앙정부하고의 인사교류도 그런 점에서 조직내부의 이해를 넓히면서 확대해 나아갈 계획. 시·군과는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인사교류의 폭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②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시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사의 공정성과 적절한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음 ③ 중부물류센터를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으며 공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 시설들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도 의견을 구하고, 다른 산업분야에도 의견을 구하고 있음 ④ 물류터미널 용지가 법의 용도에 일정 정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다각적으로 넓혀서 분양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LH와 대안을 만들어서 물류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함께 노력하겠음

A 안전자치행정국장 ①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이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 단절이 심화된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A 농정국장 ③ 다각적인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매각 여건이 호전이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 매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용도변경은 천안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며, 천안시와 협의를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로는 타 용도로의 변환도 용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A 건설교통국장 ④ 경기 회복세와 분양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요가 제한된 물류터미널 용지는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용도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LH공사와 협력하여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음

Q 교육청 ① 충남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어떤 역사 교과서를 선정하여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역사교과서 내용을 검증해 본 사실이 있는지 ② 역사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검증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해 본 사실이 있는지 ③ 역사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A 교육감 권한대행 ①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금년은 교육행정시스템을 통해서 10월 12일까지 주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학년도 한국사 신간본은 현재 연말까지 주문 연장이 안내되어 있음 ②~③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투명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장학력을 동원하여 일선학교에 역사교과서 선정과정과 내용검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중화 의원
| 홍 성 |

Q ① 직불금제도 강화 ② 농촌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귀농대책 ③ 농어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경감 대책 ④ 마을공동체 사업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A 도지사 ① 3농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직불제도의 농업재정의 구조개편안과 순증되어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으며 안이 나오면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도의회와 함께 공동결의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음 ② '귀농인 실습비 지원', '젊은 귀농인 학교' 등 사업을 통하여 젊고 능력있는 귀농인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음 ③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④ 선정된 두레기업 등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등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법인 해산시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비 환수대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A 기획관리실장 ② 우수한 귀농인력 유치를 위해 금산에 귀농창업보육센터를 설치중이며 금년 11월에 20~40대를 대상으로 '젊은 귀농인 학교'를 운영할 계획임

A 농정국장 ①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농업정책에 맞는 선진국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불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②~③ 농업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④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보충질문

Q 농정국장 ① 3농혁신 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 나온 결과물은 무엇인지, 농업을 하시는 분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A 농정국장 ① 3농혁신 위원회는 현재 약25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주요기관,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그 다음에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의 리더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실·국장들이 위원은 아니지만 함께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스물다섯 분중에서 일곱, 여덟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농정국장 ② 3농혁신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나 입법건의를 한 내용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지

A 농정국장 ② 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농정 중간 전문지원 조직이 필요하며 중앙차원에서 법제화를 해서 농정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초기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제채택을 건의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는 농업 보조금의 포괄적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음



유익환 의원
|태 안|

Q ① 충남도의 현안사업 등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 ② 행정혁신의 추진성과 ③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 대책

A도지사 ①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예산 협상 목록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음 ②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충남도의 사례가 발표되었던 것이 우리가 노력했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함 ③ 본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지가 가장 중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조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지원하겠음

A기획관리실장 ① 지휘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분석 센터도 만들어서 경제적인 논리를 좀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 토론펙·독서 대학·도민참여형 감사제도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군 직원과 도 직원의 워크숍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림

A문화체육관광국장 ③ 환경적인 여건들이 양호한 상태로 바뀌었고 12월초면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여부 결정될 것이며 골프장 6홀이 줄었고 숙박시설이 전체적으로 37%가 줄었으며 이것은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본안 협의중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는 보완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보충질문

Q ① 안면도 관광지 관련 국비확보 관련 ② 3농혁신 관련 ③ 행정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장 공석 관련

A도지사 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과 함께 협업을 더 강화해서 충남도의 현안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② 우리 농업·농어촌 현실이 지난 2년의 노력을 가지고 조금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앞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 드림 ③ 행정혁신과 각종 혁신 노력은 유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역사문화연구원의 장기 공석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화재단에 대한 논의와 연동되다 보니 오래 길어졌음



박찬중 의원
|금 산|

Q ① 직물제의 대한 도의 견해 ② 금산세계인삼엑스포 1회성이 아닌 발전적 연계 지원 절실

A도지사 ① 지역특성과 연계해서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우리 안을 낼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음 ② 깻잎, 산업과도 관련되어서 인삼 산업의 종주지로서의 금산 산업의 전후방 효과까지 모두 계산을 하는 엑스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의회와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음

A농정국장 ① 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건의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② 지역 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로 노력을 하겠으며 외국산 인삼제품이 국내산 인삼제품으로 둔갑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에 대한 노력을 하겠고 유통구조 서비스 수준을 국제화하는 노력도 금산군과 함께 추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음. 문화예술 차원에서 시행하는 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음

Q 교육청 ①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점 ② 대안고등학교 학력인증 관련

A교육감 권한대행 ① 상시 공직감찰단 운영 확대 강화해서 공무원 선거종립 의무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며 교육 본연에 충실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A교육행정국장 ② 학력인증을 받고 하는 사립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편성 시설기준 등 학력인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5분발언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 10. 7)



이종현 의원
|당 진|

3농혁신 성공추진으로 농어민 살려야

3농혁신은 도정 제1과제로 선정·추진됐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11~2014년까지 5대전략 30대 중점사업 347개 사업에 총 4조 309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3농혁신 이전과 다르게 없으며 농업직불금 확대 등 직접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3농혁신 예산도 2013년도 대비 20%정도 감액 편성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충남 농어업인이 바라는 3농혁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기철 의원
|아 산|

도지사 시책추진비 공평하게 집행해야

지난 3년간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집행이 시·군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11~2013년 기간동안 813억 6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액의 10%인 81억원이 논산시, 73억 7000여만원이 공주시, 65억 3000여만원이 서천군에 집행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훨씬 많은 아산시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 2000여만원이 지원되어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납세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난 3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의회예산 비중이 전국 시·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우려된다.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김종문 의원
|천 안|

박근혜 정부, 공약 조속히 이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의 후퇴로 어르신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때 어르신들 노령연금 지급을 놓고 재원 마련의 의문을 던지자 “내가 그것 실현하려고 대통령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비롯해 전국의 11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공약사항을 언제 지킬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도에 공약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4조원이지만 아직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저 충청도를 선거에 이용하여 표만 얻고 우롱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분발언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10. 17)



소방대원 복지 및 처우개선 시급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화마속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다. 우리 충남에는 349개대가 조직되어 1만 1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국민의 각종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단순 자원봉사조직을 넘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부재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도 의용소방대설치법안을 제정해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김용필 의원
|비례|

백제문화제 자립형 축제로 나아가야

선조들의 혼이 깃든 백제문화제를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축제규모를 축소하고 시·군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축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0년 동안 찬란했던 대백제의 역사와 충절의 정신을 함양하고, 계승·발전시킨다는 백제문화제의 본질적인 목적엔 공감할 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는 2007년도부터 7년간 평균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매년 20억원 이상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문화제를 위해 공주시와 부여군에 서는 각각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의 요인이 된다.



김장옥 의원
|비례|

서천군내 수산물 산지센터 설립 절실

서천군에 FPC(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FPC사업은 정부가 생산자 중심의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6단계 구조를 4단계 구조로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FPC를 건립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서천군은 5개 읍·면이 청정 서해바다와 연접하고 있고 지리적 으로 소비지인 대전시, 세종시,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서천군이 FPC사업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조이환 의원
|서천|



제265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43 건 : 개정안 32건, 폐지안 2건, 승인안 7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의안

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유기복 의원 (찬성 : 권처원 의원 외 20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답보상태임.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

승인안

1.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있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64-4번지 일원에 청양소방서 신축 (지하 1층, 지상 3층)에 따른 건축비를 도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그 밖의 처리 안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6건)(의회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원안가결)
-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해외회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기술연구집단지성사업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찬성 : 조치연 의원 외 11인/원안가결)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원안가결)
-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교육감/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국 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권차원 의원



김용필 의원



김홍열 의원



맹정호 의원



윤마숙 의원



조남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 조례안 심사(도의회사무처)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국)**는 제265회 임시회 첫 날인 10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8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농축산물류센터 비용 도비 부담 반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10월 10일 2014년 제4차 수시분 충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류하기로 의결했다. 충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부실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228억원 반환처분에 대해 전액 도비로 출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물류센터관리공사가 자본금이 잠식되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비 228억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도의 공유재산이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 공사에 대해 도에서 출자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재의 물류센터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천안시와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관리공사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28억원을 추가 출자하더라도 향후 재산매각을 통한 출자금 회수 방안이 불투명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조성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를 청취했으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자생적 경영안정을 위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김용필 의원



김정숙 의원



김종문 의원



명성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소개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박찬중 의원



윤석우 의원



유익환 의원



조치연 의원



김장옥 의원



이도규 의원

노인요양시설 공적 기능 강화 절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10월 8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노인요양시설(생생꿈마을) 운영상황」,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상황」, 「푸른충남 21실천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생생꿈마을이 사립에서 도립요양원으로 전환된 만큼 충남도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공익적 역할 수행해야 한다”며 “직원 정원 책정은 도와 협의하여 적절한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립요양원으로 전환된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것과 입소자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후원금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각계각층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처우를 개선할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0월 11일 도유림관리사무소 직원숙소 신축 현장과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했으며, 지난 2011년 10월 충남도 도유림관리사업소와 약속한 직원숙소 신축사업이 지난 9월 준공되며 빛을 보게 됐으며,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미분양 농공단지 활성화 시급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10월 8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26건) 동의를 건,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를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을 심사했다.

또한, 10월 11일 당진 합덕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입주업체의 시설점검과 종사자들의 고충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농공단지를 진입하려고 하면 가변차로가 없어 교통침체와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주여건이나 인력문제 등 당면사항을 도나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충남의 모든 농공단지들이 숙소 등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우리 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인력수급에 있어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소개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고남중 의원



송덕빈 의원



김득웅 의원



이중화 의원



조길행 의원



조이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소개



박문화 위원장



권차원 부위원장



유병기 의원



김기명 의원



김문권 의원



유기복 의원



유병국 의원



이광열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태안소방서 건축, 완벽시공 당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0월 10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2013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또한, 10월 11일 태안 부석~창리간 지방도 확포장 건설공사 현장과 태안 소방서 청사 신축현장 방문했다. 부석~창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계획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남은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태안소방서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건축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수요와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건축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❶ 과학교육원 아산시 이전 차질 없어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월 8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작성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10일~11일 특성화고(병천고), 아산학교급식지원센터, 서천초병설유치원, 공립학교(서천여자중·고), 사립학교(장항고)를 방문하여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대한 건설적 육성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서천국립생태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했으며, 생태원과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과 연계 육성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의원 소개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이기철 의원



이진환 의원



김지철 의원



명노희 의원



서형달 의원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유기복 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강철민 의원



고남중 의원



김홍장 의원



권처원 의원



김장옥 의원



명성철 의원



이종화 의원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210만 도민 염원 정부에 건의

충청남도의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복)**는 지난 10월 14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충남도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는 보고를 통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답보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소,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에서 전라남도과 달리 충청남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로 10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었으며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

충남선관위 초청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옥)**는 지난 10월 15일 의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공직선거법 등 업무 연찬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인 윤리실천규범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채수덕 지도담당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논의로는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을 비롯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등이 거론됐다.

이와함께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 의정활동 요령,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도 검토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김장옥 위원장



이광열 부위원장



유병기 의원



고남중 의원



김석곤 의원



조치연 의원



김종문 의원



김지철 의원



이도규 의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윤석우 위원장



김득웅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



김홍열 의원



유병국 의원



윤미숙 의원



장기승 의원



조길행 의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차원 협력방안 논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우)는 지난 10월 17일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비롯해 공주IC ~ 송선교차로 연결도로 건설, 제2금강교 건설, 보령 ~ 울진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대정부 주요 건의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상생발전 사업은 정부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그런만큼,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제2차)

- 운영시기 :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 운영실적 : 3개 분과위원회(교육, 농수산경제, 문화복지)

분과위명	교 육	농수산경제	문화복지
일 시	10. 8(화) 11:00~12:00(1시간)	10. 8(화) 11:30~12:30(1시간)	10. 10(목) 11:00~12:00(1시간)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농수산경제위원장실	문화복지위원장실
참석현황	도 의 원 : 5명 자문위원 : 8명	도 의 원 : 7명 자문위원 : 5명	도 의 원 : 8명 자문위원 : 3명
회의주제	자문안건 및 자문방법 결정	자문안건 협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자문방향 논의
회의결과	자문안건 도출(8건) ① 조직개편 ② 학교급식 ③ 교원인사 ④ 지역인재양성 ⑤ 고교평준화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의원 또는 직원을 통해 전달 ① 3농혁신 ② 행정사무감사 ③ 지역현안 및 여론동향 등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자료 자문위원 제공 → 추가적 자료 수집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 실시



교육분과위원회



농수산경제분과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의정연찬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의정활동 기법 습득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0월 24일부터 이틀간 보령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합동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과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 등 선진의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첫날인 24일에는 의원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성공리더의 이미지 관리법,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기법, 제266회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25일에는 내년에 개최되는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새로운 선거제도 및 공직선거법, SNS(스마트폰 등)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기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의원들의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대화와 토론형식으로 진행했다.



문화복지위원회·농수산경제위원회 합동 의정연찬회

지식습득과 정보공유의 장 마련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와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태안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2013년 합동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정연찬회는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전문지식 배양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첫날인 9월 26일에는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하여 코디네이션과 소셜네트워크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으며, 의정활동 감사 및 조사기법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9월 27일에는 타 자치단체의 의정활동 우수사례 동영상 시청한 후 언론에서 바라본 의정활동과 충남 선관위 관리과장의 "지방선거를 통한 선진 정치 문화"라는 주제의 강의를 청취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정연찬회

새로운 선거제도 습득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위원과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9월 26일부터 2일간 "2013년도 의정연찬회"를 가졌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제266회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한 이번 연찬회 첫날인 9월 26일에는 의정활동 결과를 도민들에게 폭넓게 알릴 수 있는 홍보요령, 내년도에 개최되는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새로운 선거제도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박문화 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한 가족이 되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27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남도 실·국, 본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회 지원사항과 집행부 추진사항 등도 다뤄졌다.



포토 의정

09월
27일

이준우의장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 문화) 소속 의원들은 춘장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1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에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충남소방, 도약하는 충남의용소방대



10월
01일

러시아 아무르주의회 의장단 일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했다.

10월
01일

대전 옛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정역사관'을 마련 개관식을 개최했다.





09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이준우의장과 명성철의원은 제16회 보령머드축제 기여로 조직위원회로부터 공로감사패를 수상했다.



10월
10일

충청남도의회 이준우의장은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10월
16일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대표단(사토오 마사시 부의장) 일행 10명이 충남도의회를 방문했다.



10월
16일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을 도청 문예회관에서 가졌다.



10월
17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제11회 충남자활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10월
17일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논산시 부적면 부항1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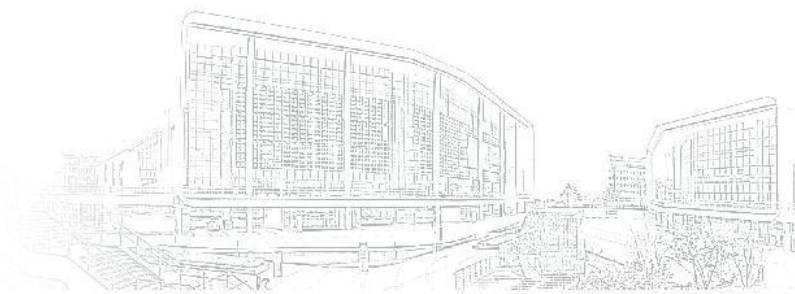
보령시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벼 연구회원 일행 의회청사 방문



금산군 제원면 구역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09월
30일

논산시 은진면 농촌지도자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10월
01일

논산시 연산면 고정1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10월
02일

논산시 연무읍 금곡3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10월
04일

논산시 연무농협장수대학생 일행 의회청사 방문(1)



10월
04일

논산시 연무농협장수대학생 일행 의회청사 방문(2)



10월
0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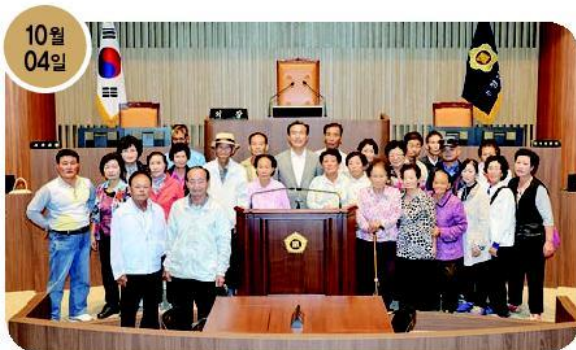
보령시 주산면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아산시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예산군 신례원2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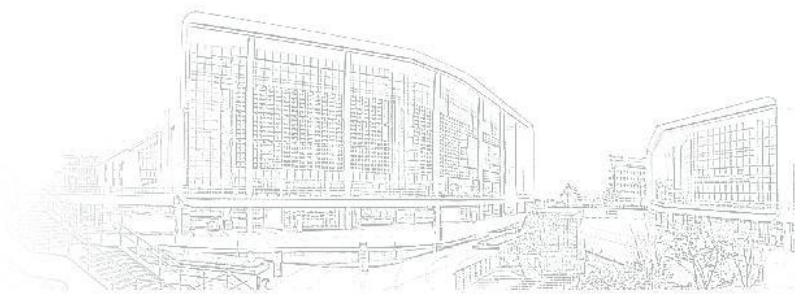
'2013 충청남도청 진로체험행사' 참여학생 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벌곡면 노인회원 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오천면 오포3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천군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부여기독교연합회원과 홍성제일장로교회 오종술목사 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논산농협산악회원 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신평고등학교 학생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산시 성남동 및 예천동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충남도립 생생꿈마을요양원 직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합덕성당 일행 의회청사 방문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청양군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홍성군 광천읍 신량1동 노인회원 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한대성결교회성도 일행 의회청사 방문



천안시 신안동 노인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충남도청 문예회관 공연안내

꿈의콘서트

Concert of Dream

충남교향악단 CHUNGNAM PHILHARMONIC ORCHESTRA

충남교향악단은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충남도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1990년에 창단된 국내 최초의 도립교향악단이다. 1991년 첫 연주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순회연주회, 특별연주회 및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통한 클래식 문화예술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초대지휘자 박종혁을 비롯하여 이병현, 장준근, 김중덕 지휘자를 거쳐 윤승업 상임지휘자에 이르기까지 단원들의 탄탄한 음악적 기량은 충남교향악단이 꾸준히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음악계에서 보기 힘든 참신하고 진취적인 기획력 또한 충남교향악단이 예술적 도약을 도모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충남교향악단은 예술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의 대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단체로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충남도청 문예회관
매일 문화 향유 주요일 "꿈의 날"

충남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꿈의콘서트

Concert of Dream

지휘 | 윤승업 크로스오버 테너 | 임태경
바이올린 | 박지혜 판타지사물놀이

2013. 11. 13.(수) 오후 7:00
충남도청 문예회관

관람료: 무료 (예매수수료 1,000원)
티켓 예매는 문화성터 홈페이지(<http://문화성터.kr>)에서 가능

관람등급: 만7세 이상 관람시간: 90분

문의: 문화경터 1544-9289 문화예술폭발

- 일 시 | 2013. 11. 13(수) 오후 7:00
- 장 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 공연문의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Tel. 041)635-3817
- 예매오픈일 | 2013. 11. 04
- 관 랐 료 | 무료 (단, 예매수수료 1,000원 별도)



지휘 | 윤승업 크로스오버 테너 | 임태경
바이올린 | 박지혜 판타지사물놀이

의회사무처 소식

“오늘은 우리가 도의원이다”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열어 의장 선출 및 조례 제정 체험



내포중학교



고덕초등학교·구만초등학교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지난 9월 16일과 30일 내포중학교 등 도내 3개 초·중학교 학생 160명을 초청해 진행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의원이 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6일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내포중학교 전교생과 지도교사 등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및 집행부 간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통해 선거방식과 주민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체험하였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안’과 ‘청소년 위치추적 시스템 의무화 조례안’ 등 2건과 ‘학교매점 설치 건의안’을 의결했다. 30일에는 고덕초등학교와 구만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63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의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방식과 주민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사무처 농촌일손돕기



2013. 10. 18(금)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584번지 한계구 농가 900평의 고추대 뽑기, 비닐제거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생중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PC버전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나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 접속방법

- 1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설치)
- 2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3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4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소개



의장인사말, 의회구성 및 조직, 전화번호, 찾아오시는 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법예고, 위원회활동



연간회기일정 및
일자별 회의일정



현역의원 및
역대의원 정보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자료



업무보고, 연구모임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의회소식지



의안소개, 검색, 통계정보



회의록 열람



의회 회의상황을 실시간
LIVE 및 녹화영상 중계
의회소식지



의원5분발언, 도정질문
등 홍보영상 VOD서비스



의회에 바라는
사항 등록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